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장 앞두고 봄기운 가득

봄꽃 가득·푸른 잔디...전체 공정률 약 98%

'정원에 삽니다' 주제로 다음달 1일 개장

편의시설 부족에 "무리 없도록 보충" 약속

27일 오후 전남 순천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오는 4월1일 개장을 앞두고 언론에 먼저 모습이 공개된 박람회장 곳곳은 초록이 한창 물들고 있었다.

곳곳에 심어진 튜립과 팬지, 프리지아, 사무비아 등 봄꽃들은 이미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주변에 넓게 심어진 푸른 잔디밭은 봄꽃으로 화려한 박람회장에 차분하면서도 상쾌한 분위기를 더했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전시장 곳곳에 이를 담아냈다.

삶과 정원이 함께라는 뜻 아래 '함께하는 정원' '회복하는 자연' '순환하는 경제'라는 세 소주제가 담겼다.

특히 동천 옆에 조성된 '그린아일랜드'는

박람회 조직위가 주제를 고스란히 투영한 곳이기도 하다.

수개월 전만 해도 이곳은 편도 2차선 도로가 놓여있어 답답한 인상을 줬던 곳이었다.

박람회가 예고되면서 이곳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모두 걷힌 뒤 초록 잔디가 심어진 푸른 정원으로 바뀌었다.

이곳에는 소주제 '회복하는 자연'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박람회 조직위는 설명했다.

조직위는 개장 5일을 앞두고 막바지 환경정비 작업에 분주하기도 하다.

관람객 동선마다 차양을 설치하는 작업은 물론 이날 공개되지 못한 일부 전시장을 대상으로 청소도 이어졌다.

애써 심은 꽃이 시들지 않도록 곳곳에서는 물을 뿌리는 작업도 이어졌다.

아직 꽃이 심어지지 않은 황톳길 주변에는



식재를 기다리는 안개꽃 등이 화분에 고이 담겨 쌓여있었다.

현재 박람회장 공정률은 약 98%다. 이날 박람회장을 먼저 체험한 언론 사이에서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넓은 박람회장에 그들이 부족한 곳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도 거리가 다소 멀게 느껴진

다는 점이었다.

최덕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총감독은 "지적이 나온 화장실 추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적극 보강해나갈 것"이라며 "정식 개장때는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내달 7일까지 참가자 모집

여수시가 내달 7일까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참가자가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 동안 전남 22개 시·군을 여행하면서 개인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남도 여행을 홍보하면 시에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숙박비, 체험활동비 등 하루 최대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참가자는 여수시에서 50% 이상 숙박 및 여행 활동을 해야 한다.

모집 예정 인원은 10개 팀 15명이며, 지일 대상은 만 19세 이상 광주·전남 지역 외 거주자로 SNS를 통해 여수 및 전남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자를 우대 선발 한다.

참가 희망자는 4월 10일까지, 여행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여수시 관광과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진흥팀 (061-659-38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들이 여수 홍보 소재로 다루져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고흥군, 풍양 읍치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 개최



첨단농업교류센터·교육학습장 주차장 조성...총 40억원 투입 향토산업 육성에 큰 도움 기대

고흥군은 3월 28일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양 읍치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주민 복지·교육 서비스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공동체 활력 도모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

업이다.

군은 그동안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풍양면 읍치리 일원에 ▲연면적 605㎡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첨단농업교류센터 ▲465㎡에 지상 1층 규모의 교육·학습장 시설 ▲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 시설물이 완공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및 교육 공간이 마련돼 이를 기반으로 풍양면민의 화합과 권역의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섭 운영위원장은 "첨단농업교류센터와 교육·학습장이 고흥군의 귀농·귀촌 거점역할과 권역 주민의 화합의 장소가 되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유네스코 보성 갯벌 알리는 주민 전문가 육성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성군이 보성 갯벌을 알리는 주민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보성군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벌교 벨레 전시장에서 '보성벌교 유네스코 갯벌 생태관광 안내인 학교'를 진행한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지역 주민 15명이 참여했으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갯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맞춰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보성 갯벌의 우수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의미,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 추진된다.

육성된 마을 주민 강사진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이어주고 갯벌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하며, 보성 갯벌을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삶의 이야기로 풀어낼 예정이다.

보성=김명순기자

광양시, 서천·마동 음악분수 새 단장...본격 운영

광양시는 서천·마동 음악분수를 새롭게 단장해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천 음악분수는 고사분수와 화염분수를 통해, 마동 음악분수는 최대 75m의 고사분수와

동백꽃을 연상시키는 원형분수, 다양한 조명으로 화려한 공연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랑 고백, 생일과 졸업 등에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수막영상에 음악과 함께 문구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이벤트를 무료

로 진행한다.

이벤트 신청은 광양시 관광홈페이지(gwangyang.go.kr/tour) 문화행사 카테고리 내 음악분수에 회원가입 후 문구와 사진을 첨부해 이벤트 희망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천·마동 음악분수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주간에는 3회(△12:30 △1:30 △2:30), 야간에는 2회(△8:00

△8:30) 20분씩 진행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과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올해는 음악분수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천 음악분수는 컬러레이저 프로젝터와 화염 연출기를 교체하고 수변 무대와 관람석 데크 보수, 도색 등 시설물 보수를 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지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